

舊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방안 건의서』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익수 의원 외 5인

2. 제안이유

-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수출 273억불(흑자수출 160억불)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R&D인프라와 산학협력네트워크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 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이전을 완료한 국립금오공대 舊 캠퍼스시설과 부지활용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전자집적지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지원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임.
-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매각”이라는 지역의지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舊 금오공대시설 및 부지에 대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임으로, 舊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을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 안을 건의코자 함.

3. 주요내용

- 최소의 예산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舊 금오공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만이 최적임을 감안하시고 부지매각 방침을 철회하여 소중한 국가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앙의 관련부처간 재 협의 요구.
-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비단 구미와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 이므로, 舊 금오공대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산업자원부로 이관 하여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

4. 참고사항

- 구 금오공대부지 활용계획

5. 검토의견

- 구 금오공대 부지는 구미시 신평동 188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의 대지 27,650평에 교육·연구·지원시설 등 건물 17,150평으로서 금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전완료 되어,
- 이와 관련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구 금오공대 부지·시설을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 혁신클러스터 T/F팀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경북도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중앙부처방문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 2005년도 정부예산에 구 금오공대부지 및 시설활용계획과 관련한 디지털전자산업관건립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함과 함께 시설 리모델링 예산 244억원을 클러스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산업단지공단중부지역본부에서 요청해 놓은 상태임.

-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에서 “금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금오공대이전과 연계한 특별회계세입 재정보전이행금 443억원의 세입충당 문제로 부처간 협의가 무산되어 “매각”하기로 결정 현재 매각처분절차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내륙최대의 국가공단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 활로를 개척하고 R&D인프라와 산학협력네트워크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구 금오공대 부지 및 시설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크러스터 지원시설활용을 건의안을
-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건의코자 함.

舊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 건의 안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740만평의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생산 48조원, 수출 273억불, 흑자수출 160억불(전국의 54%)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R&D 인프라와 산학협력네트워크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35년간 어렵게 조성된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시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과 관련한 지원시설기반사업을 금년 2월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한 국립 금오공대의 舊 캠퍼스시설과 부지활용이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조성기간을 단축하여 연구개발과 35년간의 제조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전자집적지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지원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한 국비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금오공대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중앙부처간의 상반된 결정으로 국가 미래의 성장동력인 IT산업의 장래를 어렵게 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최소의 예산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舊 금오공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만이 최적임을 감안하시고 부지매각 방침을 철회하여 소중한 국가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앙의 관련부처간 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舊 금오공대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여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건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어, 내륙최대의 국가공단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 활로를 개척하고 R&D인프라와 산학협력네트워크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 3. .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